

이렇게 창업하면 백전백패



이상연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연일 방영되는 먹방과 쿡방프로그램이 창업자들을 힘들게한다.

요즘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상이 '요섹남'이다. 요리는 섹시한 남자, 참 멋지다.

그러한 풍조 때문인지 개그맨, 가수, 배우, 운동선수 등이 앞다투어 주방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려한다. 소위 그들만의 비법을 전수한다고들 난리들이다.

창업은 절실하다. 어쩔 수 없이 창업을 선택해야만 하는 창업자들은 남들과 다른, 독특한 아이템을 찾으려 한다. 그러한 차별화가 남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나 외식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라면 한결같은 00비법, 000특제소스 등과 같은 색다른을 전

하는 단어나 어휘에 현혹될 수 밖에 없다.

최근 TV 요리, 예능프로그램이 그러한 간절함을 이용하여 시청률을 호도하기 때문이다. 창업은 무수히 많은 경우의 변수가 존재한다.

기본적인 성공창업 4요소라는 아이템, 입지, 자금, 창업자 이외에도 수많은 종속변수가 승패를 달리할수 있는것이 창업이다. 외식업의 가장 기본이 음식 맛에 대한 경쟁력이다. 즉 수익을 목적으로 음식을 서비스한다면 당연히 맛은 기본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서비스의 차별화와 마케팅, 운영자의 능력이 최대 변수일 수 밖에 없다.

단지 TV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의 과장된 리액션에 일희일비해선 안된다.

필자도 한때 수 많은 TV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출연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리얼리티를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방송은 작가와 피디에 의해 연출되

고 과장된 영상을 가장 자극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그저 화면상의 표정과 대화를 신봉한다. 이같은 결과 수많은 대박집이나 유명 음식점을 투여한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크게 실망한다. 단순한 방송의 과장된 연출을 맹신했기 때문이다.

창업은 소비자와의 진실게임이다. 얼마나 정성과 노력으로 고객과의 교감을 이루려는 작업이 창업이라 할수있다. 교감이란 가격대비 만족을 의미한다.

고객은 팔색조라 일컫는다. 상품을 구매하는 비용에 대한 만족은 단지 상품의 품질과 중량만으로 기준할수 없다. 창업자들은 자신을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모든 서비스의 중심이어야 고객의 관심과 사랑을 교감으로 승화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창업은 전쟁이기 때문이다. 나부터 최고로 포지셔닝하자.

/한국창업연구소장



중기중앙회·산림청 '산림 일자리 창출' 맞선

중기중앙회는 산림청과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산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중기중앙회와 산림청은 석재, 바이오, 관광, 목재산업 및 남북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왼쪽부터)김재현 산림청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GS그룹-한국무역협회

대기업·스타트업 상생모델 구축 앞장

GS그룹이 한국무역협회와 손잡고 대기업·스타트업 간의 상생협력 모델 구축에 앞장선다.

GS는 오는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장'을 주제로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벤처 네트워크 행사 'GWG X KIT A'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GWG(Grow with GS) 행사는 2015년부터 GS홈쇼핑이 투자사와 파트너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된 벤처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올해 행사는 GS홈쇼핑뿐만 아니라 GS칼텍스·GS리테일·GS글로벌·GS건설 등 GS 계열사들이 함께 참여해 대기업과 스타트업, 스타트업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상

생협력 모델 구축 및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반에 있는 300여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했으며 이중 GS 계열사와 무역협회의 전문가들이 심사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54개사를 선발해 전시부스 운영,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행사 및 IR포칭 등을 진행한다.

특히 스타트업이 직접 투자 설명회를 하는 IR포칭에는 8개 유망 기업이 참가하며 전문평가단이 기술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기업 3개 팀을 선정하여 시상도 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최종구 금융위원장, 'IBK창공 구로점' 개소식 참석

"IBK창공, 혁신창업 생태계 마중물 될 것"

청년 창업지원 인프라 확대
이달 3조 성장지원펀드 집행

"기업은행의 'IBK창공' 등 청년 창업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구로동 기업은행 지점 5층에 개점한 IBK창공 구로점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IBK창공은 창업기업이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최대 5000만원의 초기 투자, 저금리 대출, 컨설팅, IR,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이다.

IBK창공 구로는 기업은행 구로동지점 건물에 마련됐으며, 306개 기업이 지원해 1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첨단제조, 문화콘텐츠 등 기술력과 시장성을 겸비한 기업들이 최종 선발됐으며, 앞으로 6개월 동안 'IBK창공'의 창업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영업점을 활용해 청년 기업에 사무공간 및 멘토링·컨설팅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IBK창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안건준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장(왼쪽 두번째부터) 등이 1일 서울 구로동에서 열린 'IBK 창공(創工) 구로' 개소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은 청년창업 생태계가 풍부해지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육이나 IBK창공 등이 단순히 물리적 사무공간을 넘어 혁신창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옛 신보 마포사육을 국내 최대의 청년 창업타운으로 조성 중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 분야의 혁신창업을 촉진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

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허용하고 금융권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 분야에서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는 앞서 3년간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하고 4년간 20조원 규모의 연계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선 3조원 상당의 펀드를 조성해 10월부터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유재희 기자 ryusou@

태광그룹, 최대 6학기 지원 장학생 선발

국내 4년제 1학년 재학생 중 60명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일주재단)은 국내 4년제 대학교의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6학기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는 '2019학년도 27기 국내학사 장학생 선발'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공제한 없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이는 학생 60명을 선발한다.

이 사업은 '학비를 낼 수 없는 학생들에게 조건 없는 지원'을 약속했던 재단 설립자 고 이임우 회장의 철학에 따라 1991년부터 28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50여 명의 장학생을 지원했다. 지원 자격은 국내 4년제 대학 1학년 재



학생 중 1학기 성적이 평점 3.0 이상(4.5점 기준)이며, 선발 후 학기당 15회(총 30시간) 이상 멘토링 활동이 가능한 학생이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1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이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12월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제출서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외 각종 활동내역 증빙서류 등이며, 접수는 일주학술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급 △소통메시지비서관 박상주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김연숙 △의료기관정책과장 오창현 △건강정책과장 김국일 △구강생활건강과장 장재원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정은영 △사회서비스지원과장 임혜성 △사회보장총괄과장 김문식 △노인정책과장 이상희 △기초연금과장 서일환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학검역소 검역1과장 주수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 이춘기 △국립공주병원 서무과장 이한기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안전지원과장 변루나

◆충북도 ◇4급 △에너지과장 신동승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김진탁 ◇5급 승진 내정 △전력산업과 김유택 △의회사무처 박종복 △경제자유구역청 배성만 △정책기획관실 조미애 △안전정책과 하석호 △전력산업과 전광호 △바이오산업과 정길 △농업정책과 김기은 △유기농산과 남태우 △동물위생시험소 최동수 △축수산과 엄만섭 △보건정책과 한찬오 △회계과 지영훈 △유기농산과 최용해 △건축문화과 이범찬 △토지정보과 박승용 △정보통신과 김유중 △보건환경연구원 광충철 △농업기술원 황세구 △보건환경

연구원 신기호 △농업기술원 신은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담당관 전유덕

◆문화재청 ◇과장급 정보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팀장 김동대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장 신용선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장 김정남

◆NH투자증권 ◇부장 신규선임 △ECM2부 하진수

◆라이나생명 ◇상무 승진 △Build 영업본부/영업기획부 이신형 ◇이사 승진 △IT 개발부 박승철 △IT 기획부 이용수

◆IBK연금보험 ◇자산운용본부장 신규 선임 △안태일(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채권운용실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전무 승진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사업본부 김경윤 △컨슈머 및 디바이스 사업본부 채준원 ◇상무 승진 △재무/회계 경영지원본부 Ray Yap △파트너 및 SMC 사업본부 이용세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사업본부 민주홍 △마케팅오퍼레이션 사업본부 유현경 ◇이사 승진 △컨슈머 및 디바이스 사업본부 권현숙 △컨슈머 및 디바이스 사업본부 이승호 △엔터프라이즈 커머셜 사업본부 이준용 △엔터프라이즈 커머셜 사업본부 진상훈 △엔터프라이즈 커머셜

사업본부 최소영 △재무/회계 경영지원본부 길민기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사업본부 윤진섭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사업본부 이승희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사업본부 서상원 △파트너 및 SMC 사업본부 오근택 △파트너 및 SMC 사업본부 김동욱 △파트너 및 SMC 사업본부 김성미 △마케팅오퍼레이션 사업본부 이승연

◆CBS ◇승진 △미디어본부 디지털미디어센터 1CP 부장 박유진

◆전북일보 △편집국장 강인석 △서울본부 선임기자 김준호

◆EBN △편집국 유통중기부장 정현철 △광고

마케팅국 부국장 황재섭

◆매일일보 △산업부장(부국장) 이근형

◆이투데이 △논설실장 추창근

부음

▲이천우(웨더피아 대표)씨 별세, 이상원(한국수력발전 UAE 사업센터 대리)·이종은(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씨 부친상, 임상욱(BMGBS)씨 장인상 = 1일 오전 7시 2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02-2072-2091

골든블루 '2018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공식후원

골든블루가 세계 유일의 여자골프 국가 대항전인 '2018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201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돼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유일한 국가 대항전으로 이번 대회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개최된다.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세계 랭킹 기준으로 총 8개국, 32명 선수가 출전하여 우승을 겨루는 LPGA 공식 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일본, 태국, 대만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총출동하여 나홀로 치열한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2년마다 개최되는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기존에 대회가 진행되었던 미국에서 벗어나서 올해 처음으로 해외에서 진행되며, 3회 개최되는 LPGA에서 상위권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한 한국으로 결정됐다.

이번 대회 유일하게 공식 주류 후원사로 선정된 골든블루는 국내 1위 위스키 '골든블루'와 세계 4대 맥주회사의 '칼스버그'로 세계 골프 애호가들에게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단순한 대회 후원에 그치지 않고 위스키 '골든블루'의 도수인 36.5%와 기부를 연계한 홀인원&버디 이벤트(Donation with Players)도 함께 진행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전개한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